

K-ADNI 치매 뇌영상 연구 : 좌절과 교훈

김성윤(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한국 알츠하이머 뇌영상 선도연구 (K-ADNI)는 치매의 진행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반 연구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뇌영상 선도연구와 동일한 모델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WW-ADNI (World-wide ADNI)로도 불리웁니다.

정상,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인지장애 등 총 500 명의 임상 정보, 신경심리정보, 자기공명과 핵의학 영상, 유전 정보, 혈액과 뇌척수액 시료를 3년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치매의 발병, 악화 및 완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제의 유효성 검증에 가장 효과적인 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 WW-ADNI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자료의 완전 공개입니다.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익명화된 뇌영상 및 임상 자료, 유전 정보, 생물학적 시료 등, 축적된 모든 자료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오픈 모델입니다. 이미 신경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임상의학 분야 연구자나 생명공학, 노화, 의공학, 의료통계학, 기초의학 연구자, 산업체 소속 연구자 등에

의한 수백편의 논문들이 WW-ADNI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연구 재원의 다변화입니다. 인구의 노화는 중요 국가적 이슈이므로 연구비의 반 이상을 각국의 정부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의 산업체, 환자 및 보호자 개인과 단체 등이 이 WW-ADNI 연구비 모금에 적극 참여하는 독특한 연구비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본 연구의 취지를 살려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K-ADNI 가 발족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국내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 등 난관을 극복하며 3년간의 인프라 구축을 마쳤으나, 2단계 진입에 실패하고 정부 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 이슈 토론에서는 K-ADNI 연구 중단의 원인과 배경, 해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향후 치매와 노화 연구의 네트워크 기반을 재정립하고, 유사한 민간 및 국책 장기 연구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귀중한 교훈과 지혜를 얻는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